

제158주기
대신사 순도추모식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포덕 163(2022)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제158주기
대신사 순도추모식 및
순도선열 합동위령식



포덕 163(2022)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식 순

1. 개 식
1. 청 수 봉 전
1. 분 향(집 례)
1. 심 고
1. 주문3회병송
1. 경 전 봉 독(성령출세설)
1. 위령문 낭독
1. 천덕송 합창(대신사 환원기도가)
1. 추 념 사
1. 천덕송 합창(위 령 송)
1. 분 향
1. 심 고
1. 폐 식

추 념 사

오늘은 수운대신사께서 선천시대의 낡고 그릇된 위정자들에 의해서 참형을 당하신지 158주기가 되는 순도일입니다. 이날을 맞아 무극대도가 창명된 이래 보국안민 광제창생을 위해 순도 순국하신 수많은 선열들의 성령을 함께 위무하고 그 정신을 기리고자 오늘 저희 후학들은 합동위령식을 봉행합니다.

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대신사께서 경신년에 무극대도를 득도하시어 신유포덕이 시작되자 지배세력은 무극대도를 당시 국금의 대상이었던 서학으로 몰아 무고하고 중상모략 하였습니다. 이에 대신사께서는 “내가 동에서

태어나 동에서 도를 받았으니 도는 비록 천도이지만 학인즉 동학이라”고 하시어 서학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은 동학이 조선조의 지배이념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흑세무민하는 사도(邪道)로 몰아 결국 대신사를 체포하여 좌도난정(左道亂正)이라는 죄목으로 참형에 처하였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동학의 평등이념이 자신들의 차별화된 기득권 신분사회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좌도(左道)로 몰아 대신사를 참형하였던 것입니다.

동학 천도교가 이처럼 창도 이래 수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역사를 답습하게 된 것은 대신사님의 말씀 그대로 금불문고불문(今不聞古不聞)하고 금불비고불비(今不比古不比)한 무극대도의 진리와 이념에 대한 낡은 사회의 저항으로 나타난 반역사

적 현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 선천사회의 몰지각한 위정자들은 대신사와 해월신사를 비롯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선열들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빼앗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습다.

그러나 한번 타오르기 시작한 무극대도의 횃불은 오히려 더 맹렬하게 번져나가 그들 낡은 세력이 지키고자 했던 구시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땅에 인간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인여천의 근대사회를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은도시대 46여 년간의 동학의 역정은 실로 수난으로 점철된 역사였습니다. 그 오랜 세월동안 동학교문에 대한 가혹한 박해와 수탈로 인해 성(姓)과 이름을 바꾸거나 고향을 등진 채 유리방황하는 교

인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도인들은 공주·삼례의 신원운동에 이어 포덕 34년 2월에는 목숨을 걸고 서울까지 올라가 광화문 앞에 엮드려 스승님의 억울한 누명과 동학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것을 상소하였으나, 이러한 도인들의 애끓는 하소연이 무시된 채 동학에 대한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포덕 35년에 일어난 갑오동학혁명은 오랜 세월 동안 부패한 위정자들의 학정과 횡포를 견디다 못한 동학도인들의 절박한 분노가 도화선이 되어 봉기한 반봉건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능한 조정은 일본군과 결탁하여 신식무기로 무차별 학살함으로써 수십만 동학군 선열들은 산과 들을 피로 물들인 채 처절하게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수난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후 해월신사를

비롯해서 손천민(孫天民)·강성택(康聖澤)의 순도와, 갑진개화운동, 3·1독립운동, 멸왜기도운동, 광복 후의 남북분열저지운동 등을 통해서 수많은 선열들이 순도 순국하셨습니다.

순도 순국하신 선열들의 성령이시여!

종법수호와 보국안민의 제단 위에 순도 순국하신 선열들의 희생을 어찌 필설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열들께서는 인내천을 꽃피운 지상천국의 이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일신을 아낌없이 바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우리 교인들이 편안하게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이루어진 결과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열들께서 그토록 생명과 재산을 바쳐 지켜온 천도교가 오늘날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

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은 실로 죄책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희 후학들이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계승하지 못하고 정성과 믿음이 미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신사께서는 정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게으름을 알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도(道)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기둥을 굳건히 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대신사님의 훈도를 올바르게 이행하지 못한 불찰을 깊이 참회하고 있습니다.

대신사님의 성령이시여!

오늘날 저희 후학들이 불민하여 스승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사오나, 삼가 참회 반성함으로써 심기일전하여 스승님과 선

열들께서 펼쳐 오신 포덕천하, 광제창생의 대의를 온전히 실천하고자 맹세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지구 환경의 재앙적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한울님 마음을 회복하여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오니 감응하옵소서.

포덕 163(2022)년 3월 10일

교령 송 범 두 심고

대신사 환원기도가

1. 포 - 덕 - 오 년 갑 자 삼 월 십 일
 2. 형 장에 - 문 은 피 만 인 을 늘 램 때
 3. 해 월신 사 불 러 오 인 타 을 하 시 - 니
 4. 한 그릇 칭 수 로 영 결 하 시 - 니

1. 대 신 사 더 운 피 뿌 리 시 - 다
 2. 대 신 사 절 명 이 부 스 리 물 두 - 번
 3. 순 순 하 신 그 효 유 간 절 하 시 - 다
 4. 굳 고 굳 은 그 맹 세 포 덕 광 - 제

1. 친 고 에 한 끼 친 대 구 장 대 야
 2. 쌀 쌀 코 귀 먹 은 세 상 사 람 들
 3. 동 명 수 상 - 에 무 협 극 이 요
 4. 슬 프 다 환 구름 채 색 무 지 개

1. 한 울 님 과 신 인 을 물 랐 던 - 가
 2. 과 - 친 - 통 곡 도 들 듣 지 못 한 가
 3. 주 - 사 - 고 - 형 을 역 유 여 - 라
 4. 너 왜 우 리 수 심 을 자 아 내 는 고

후렴

거룩 하옵신 수운대 신사

높고 높으신 후천천 황씨

명을 주시고 천도바꾸어

의조창생을 살리시네

위령송

1. 장 평 갱 즐 많 은 사 람
2. 함 지 사 지 많 출 생 들 아

1. 한 을 님 을 우 리 러 서
2. 보 국 안 민 어 찌 할 꼬

1. 조 화 중 에 생 겼 으 니
2. 대 저 인 간 초 목 군 생

1. 은 덕 - 은 고 사 하 고
2. 사 생 재 천 아 닌 런 가

1. 근 본 조 차 잇 을 소 나
2. 불 시 풍 우 잇 원 망 해 도

1. 불 망 기 본 하 였 어 라
 2. 임 사 호 천 아 닌 런 가

후렴
 효 박 - 한 이 세 상 에

불 고 천 명 하 단 말 가

가 련 - 한 세 상 사 람

경 천 순 천 하 였 어 라

性靈出世說 (성령출세설)

1. 宇宙元來靈之表顯者也

우주는 원래 영의 표현인 것이니라.

2. 靈之積極的表顯 是有形也 靈之消極的攝理是無形也 故無形有形也 卽靈之現勢力 潛勢力之兩轉輪也

영의 적극적 표현은 이것이 형상있는 것이요, 영의 소극적 섭리는 이것이 형상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형상이 없고 형상이 있는 것은 곧 영의 나타난 세력과 잠겨 있는 세력의 두 바퀴가 도는 것 같으니라.

3. 茲有一物從之而忽有靈性之活動 是以靈之結晶 生物之組織也 以物之組織 又生靈之表顯也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 문득 영성의 활동이 시작되었나니, 이것은 영의 결정으로써 만물의 조직을 낳은 것이요, 만물의 조직으로써 다시 영의 표현이 생긴 것이니라.

4. 故 靈與世不過同一理之兩側面而已

그러므로 영과 세상은 같은 이치의 두 측면일 따름이니라.

5. 大神師 嘗 呪文之意解釋曰「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是 指稱以靈之有機的表顯 道破人乃天之定義也

대신사 일찌기 주문의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모신것이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하셨으니, 이는 영의 유기적표현을 가리킴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정의를 도파한 것이니라.

6. 故性靈根本出世的矣 靈移而別無物 物移而別無靈 更無世 究竟 靈而需世 世而得靈 物物各遂其性 是神妙之性靈活動 應於萬機萬相 與器數應於出世調攝 譬如同一雨露 桃結桃實杏結杏子 是從千差萬別之植物 結千差萬別之果實

그러므로 성령은 근본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니라. 영을 떠나 별로 물건이 없고 물건을 떠나 별로 영이 없고 다시 세상이 없으니, 마침내 영은 세상을 마련하고 세상은 영을 얻은 것이니라. 물건마다 각각 그 성품을 이룬 것은 이 신묘한 성령의 활동이 만기만상에 응한 것이요, 기국대로 세상에 나 조섭하는데 응함이니, 비유하면 같은 비와 이슬에 복숭아는 복숭아 열매를 맺고, 살구는 살구 열매를 맺나니, 이것은 천차만별의 식물에 좇아 천차만별의 열매를 맺음과 같으니라.

7. 同一性靈 無量大德之妙法 順化大天大地之各個差別 鳶飛於天 魚躍於淵

같은 성령에 헤아릴 수 없는 큰 덕의 묘한 법이 대천 대지의 각개차별을 순히 화하여, 하늘에 솔개가 날고 못에 고기가 뛰는 것이니라.

8. 然而人是萬物中 最靈者萬機萬相之理 總俱體者也 人之性靈 是大宇宙靈性純然稟賦同時 萬古億兆之靈性 以唯一系統 爲此世之社會的精神也

그러나 사람은 이에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었으니, 사람의 성령은 이 대우주의 영성을 순연히 타고난 것임과 동시에 만고역조의 영성은 오직 하나의 계통으로서 이 세상의 사회적 정신이 된 것이니라.

9. 神師 受人乃天之心法 定向我設位之祭法 是表明宇宙之精神 卽億兆之精神也 共更明定億兆之精神 卽我一個體之精神也

신사께서 사람이 곧 한울인 심법을 받으시고 향아설위의 제법을 정하시니 이것은 우주의 정신이 곧 억조의 정신인 것을 표명하심과 아울러, 다시 억조의 정신이 곧 내 한 개체의 정신인 것을 밝게 정하신 것이니라.

10. 此以一層狹義而言之 前代億兆之精靈 爲後代億兆之精靈之點 祖先之精靈 與子孫之精靈 融合表顯 先師之精靈 與後學之精靈融合 永遠出世的活動有之也

이를 한층 뜻을 좁히어 말하면 전대 억조의 정령은 후대 억조의 정령이 된다는 점에서, 조상의 정령은 자손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표현되고, 선사의 정령은 후학의 정령과 같이 융합하여 영원히 세상에 나타나서 활동함이 있는 것이니라.

11. 又悅 大人之德 與天地共活用靈性 故天與吾神師 但有有形無形之別 觀其靈性的契機則全爲同一範圍 同一活動 同一表顯也 是天卽人人卽天之所由來 天地萬物共順應 時代億兆同進化故 其心法決非超人間的 全然合世間的出世間的

또 하물며 대인의 덕은 천지와 더불어 같이 성령이 활용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한울과 우리 신사는 다만 형상이 있고 형상이 없는 구별이 있을 뿐이요, 그 영성의 계기로 보면 전혀 같은 범위에서 같은 활동이 같이 표현되는 것이니, 이것은 한울이 곧 사람이요, 사람이 곧 한울인 관계이니라. 천지 만물은 한가지로 순응하여 시대억조와 같이 진화하므로, 그 심법은 결코 인간을 떠난 것이 아니요, 전부 세간과 합치된 것이요, 세간에 나타난 것이니라.

12. 余嘗 梁山修煉之時 豁然得 「昔時此地見 今日又看看」之詩句 是大神師之昔時余之今日 性靈上同一心法立言

내가 일찌기 양산 통도사에서 수련할 때에 활연히 「옛적에 이곳을 보았더니 오늘 또 보는구나」하는 시 한구를 불렀으니, 이것은 대신사의 옛적과 나의 오늘이 성령상 같은 심법임을 말한 것이니라.

13. 大神師 既爲性靈出世矣 一切物物心心 皆不無此性靈之出世的表顯也
대신사는 이미 성령으로 출세하셨으니 일체의 물건마다 마음마다 다 이 성령의 출세한 표현이 아님이 없는 것이니라.

14. 然而吾人 以此覺得 未覺得之所以 全關係性靈之修煉不修煉 若以吾人各受大神師之心法而性靈修煉之結果 一朝豁然境到之則 茲覺大神師之心法 一切宇宙之心法而從以覺自己之性靈 卽大神師之性靈 不生不滅 無漏無增 是大性靈之根本的出世也

그러나 우리 사람이 이를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바는 전혀 성령을 수련하고 수련치 않는 데 관계한 것이니, 만약 우리가 각각 대신사의 심법을 받아 성령수련한 결과가 하루 아침에 환한 경지에 이르면, 이에 대신사의 심법이 일체 우주의 심법임을 깨닫고 따라서 자기의 성령이 곧 대신사의 성령임을 깨달을 것이니, 불생불멸하고 무루무증한 것은 이것이 큰 성령의 근본적 출세이니라.

위령문

한울님과 스승님 감응하옵소서.

오늘 3월 10일은 대신사께서 순도하신지 15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을 기하여 순도순국하신 스승님과 선열들을 추모하는 합동위령식을 봉행하오니 성령이시여 감응하옵소서.

대신사께서 후천의 새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무극대도를 창명하신 후 선열들께서는 수도와 포덕에 전념하시면서 온갖 고초를 감수하며 이 땅에 무극대도를 펴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운이 여의치 못하여 거룩한 뜻을 세상에 펴지 못한 채 참형, 교형, 전사, 옥사, 익사, 장사, 총살 등 참혹하게 순도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다만 한 몸과 한 집을 위하여 살다가 안방에서 편안하게 죽어도 슬퍼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거늘 선열들께서는 우리의 무극대도가 인간의 행복과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시어 도탄 중에 헤매는 창생을 구원하려다가 소중한 생명을 바치셨으니 그 숭고한 뜻과 불멸의 공덕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바야흐로 ‘산하대운이 진귀차도’하는 시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한울을 공경하지 않고 한울의 이치를 순하게 따르지 않는 각자위심으로 살아간다면, 사회는 사회대로 질서가 문란해지고 혼란과 병폐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

이요, 따라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생명체들이 제대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시천주의 참진리를 갈구하며 인내천 정신을 밝히는 햇불이 점차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선열들의 순도가 헛되지 아니한 덕화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울님께서 사람을 만물 가운데 가장 신령한 자로서 만기만상의 이치를 모두 한 몸에 갖추어 화생시켜 육신을 마련한 것은 바로 스승님의 뜻을 이 세상에 실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선열들의 성령이 우리 후생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그 불굴의 정신을 받들어 후천의 새 세상을 이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수도와 포덕에 힘쓰면서 대도의 목적인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 지상천국건설의 대원을 달성할 것을 선열들의 영전에 맹세하오니, 성령이시여 굽어 살피시옵고 명우(冥祐)가 있어지이다.

포덕 163년 3월 10일

천도교중앙총부

수운 최계우(水雲 崔濟愚) 대신사 약력

- 포덕전 36년(1824) 10월 28일 경주 월성군 현곡면 가정리에서
부친 경주 최씨 옥과 모친 한씨 사이에서 탄생하시다.
처음 이름은 제선(濟宣) 자는 도연(道彦) 이시다.
- 포덕전 29년(1831) 모친 환원하시다.
- 포덕전 20년(1840) 부친 근암공 환원하시다.
- 포덕전 18년(1842) 울산의 밀양 박씨와 혼인하시다.
- 포덕전 17년(1843) 집이 불타 용담정으로 이사하시다.
- 포덕전 16년(1844) 주유천하에 나서시다.
- 포덕전 6년(1854) 주유천하를 마치고 울산 호암동(일명 여시바윗골)에
초가 삼간을 짓고 구도의 수행에 들어가시다.
- 포덕전 5년(1855) 3월에 호암동에서 을묘천서를 받으시다.
- 포덕전 4년(1856) 양산 천성산 내원암에서 수행하시다가
숙부의 환원을 직관하시고 47일만에 하산하시다.
- 포덕전 3년(1857) 천성산 적멸굴에서 다시 49일간의 기도를 마치시다.
- 포덕전 1년(1859) 10월에 경영하던 철점이 파산되어
집과 땅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용담으로 돌아오시다.
- 포덕 1년(1860) 2월에 입춘시를 지으시며 구도의 결의를 다지시다.
이름 제선을 제우(濟愚)로, 자 도연을 성묵(性默)으로,
호를 수운(水雲)으로 고치시다.
4월 5일 용담에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으시다.
5월 용담가를 지으시다.
- 포덕 2년(1861) 6월부터 포덕을 시작하자
어진 선비들과 민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다.
7월에 포덕문, 8월에 안심가를 지으시다.
11월에 유생들이 서학으로 몰아 관으로부터 탄압이 있자
제자 최중희를 데리고 남정길에 오르시다.
12월 호남지방 남원 교룡산성 隱跡庵에 은거하시다.

- 포덕 3년(1862) 1월에 권학과와 논학문을
 6월에 수덕문과 몽중노소문답가를 지으시다.
 7월에 경주부 청송으로 돌아와 박대여의 집에 머무시다.
 9월 많은 제자들이 출입하자 경주영장은 대신사를 체포,
 이 소식을 들은 도인 5-6백명이 모여 영장에게 항의하자
 5일만에 석방하다.
 10월 14일 처신을 신중히 하라는 통문을 띄우시다.
 11월 9일 흥해 매곡동 손봉조의 집으로 옮기시다.
 12월 26일에 연원의 효시가 되는 접주(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시다.
- 포덕 4년(1863) 3월 9일 용담정으로 돌아와 필법을 지으시다.
 4월에 좌잡을 지어 강수에게 주시다.
 6월에 개접(開接)하여 많은 도인들에 가르침을 베푸시다.
 7월 23일 파접(罷接)하시다.
 이날 최경상에게 해월(海月)의 도호를 지어주시고
 북도중주인(北道中主人)으로 임명하시다.
 하순에 도덕가를 지으시다.
 8월 초순에 흥비가를 지으시다.
 8월 14일 최해월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시다.
 11월 불연기연을 지으시다.
 12월 10일에 조정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에게 피체되시다.
 대신사와 이내겸은 서울로 압송되고
 나머지 30명은 경주옥에 하옥되다.
 12월 20일 과천에 당도했다가
 철종의 국상(國喪)을 당하여 경상감영에 환송되시다.
- 포덕 5년(1864) 1월 6일에 대구 감영에 수감되시어
 20일부터 혹독한 신문(訊問)을 받으시다.
 3월 10일 좌도난정률의 누명을 쓰고
 대구 관덕당에서 참형을 받아 순도하시다(41세).



천도교중앙총부

110-77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경운동 88)

www.chondogyo.or.kr webmaster@chondogyo.or.kr

TEL +82-2-732-3956 FAX +82-2-739-4533